

“용접공 경험 살려 브라질 타악기 직접 만들었죠”



‘퍼커션팩토리:토노’ 김누리(위쪽) 타악 연주자와 동인으로 활동하는 김민철 씨. <토노 제공>

‘퍼커션팩토리:토노’ 김누리 대표 트럭포장 천막·폐현수막 등으로 전통악기 ‘수르드’·‘헤삐끼’ 제작

‘설치예술+음악’ 퍼포먼스 스토리 있는 거리극 등 계획 다양한 레퍼토리·악기로 타악기 한계 극복하고자 24일 양립&크리스마스 축제

“수년 전 한 태양광 회사에서 2년간 용접공으로 일한 적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지그(제작틀)’를 활용해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 남은 고철이나 쇠조각으로 모양을 잡으면서 실력을 키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업사이클링 타악기를 제작하게 됐네요.”

팔뚝만 봐도 ‘타악기 좀 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양손에 든 용접기와 우악한 철제 마스크가 눈길을 사로잡지만 누구보다 섬세한 리듬감을 자랑하는 사람.

바로 지역에서 타악기 연주자로 활동 중인 김누리(29) 씨다.

광주 출신인 그는 전남대 음악교육과에서 클래식 타악을 전공한 뒤, 동 대학원 국악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동안 빅보스마칭밴드, 퓨전국악그룹 울라, 광주윈드오케스트라 소속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퍼커션팩토리: 토노 대표를 맡고 있다.

김 씨는 대학 시절 배웠던 용접 기술을 활용해 브라질 전통 ‘바투카다 악기’를 제작해 왔다. 어떻게 생소한 브라질 타악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그는 “처음에는 핸드퍼커션 레슨을 받기 위해 단체를 알아보다 ‘블레’라는 아프로 브라질리언 퍼커



그가 만든 업사이클링 타악기들. 왼쪽 위부터(시계방향) 마라카스, 쇠소리 장구, 마칭 키트, 수르드.

션 팀을 접했다”며 “일반적인 카혼이나 롱가, 봉고 같은 악기를 예상하고 찾아갔으나 알고 보니 처음 들어본 바투카다를 다루는 단체였다”고 회상했다. 이때 경험이 업사이클링 퍼커션 활동까지 연계된 것.

이 “우연에서 시작됐지만 그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릴 정도로 바투카다는 매력적인 타악 장르”라며 “영혼 깊은 곳부터 끓어오르는 브라질리언 리듬과 6시간 이상 진행되는 까미누(연행·합주)가 선사하는 격양된 기분, 다른 곳으로 전이된 듯한 트랜스 감각이 압권이다”고 했다.

김 씨는 트럭포장 천막 등으로 브라질 전통악기 ‘수르드’, ‘헤삐끼’를 만들어 이목을 끌었다. 깨진 징 두 개를 붙여 장구를 제작하거나 폐현수막과 장구를 혼합해 현 악기에 새 생명을 부여해 왔다.

김 씨는 빅보스마칭밴드 소속으로 오는 24일 ‘2024 양립&크리스마스 문화축제’에서 타악기로 크리스마스 이브닝 공연을 장식할 예정이다. 지난 달에는 서구문화센터 환경음악회 ‘공존’,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남구 친환경에너지전환 축제 등에서 관객을 만났다.

지난 7월, 11월 바투카다를 기반으로 ‘뉴비스테이지’에 참여해 ACC 예술극장과 광주공연마루서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이 밖에도 서울남산국악당 무대에 전남대 국악과 대표로 출연, 타악기의 신명을 선사했다.

국악·타악연주자 김민철과 지난해 12월 만든 타악단체 ‘퍼커션팩토리:토노’는 작품은 물론 악기까지 스스로 생산한다는 컨셉의 업사이클 퍼커션 단체다.

김 씨는 “향후 스토리가 있는 극 형식의 ‘논버블 거리극’이나 무대장치와 악기가 구별되지 않는 ‘설치예술+음악’ 퍼포먼스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토노가 울적없는 타악이 익숙한 타악 연주자 두 명으로 구성됐기에 소리가 발생하는 순간의 악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어려움도 뒤따른다고 한다. 김 씨는 “이 같은 타악적 한계를 다양한 레퍼토리, 악기로 극복하는 것이 남겨진 과제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올해 울산쇠부리축제에서 전문연주단체 부문 금상을 수상한 것을 촉매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뮤지컬 ‘한결이 함류해 음율이 가미된 작품’을 만드는 중이다.

한편 김 씨는 타악기 연주자로서 평소 웨이트 트레이닝과 주짓수, 복싱을 익혀왔다고 한다. 좋은 음악을 위해 근육의 많고 적음은 크게 중요치 않으나 ‘악기의 역량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싶다’는 설명에서 그가 추구하는 음악 철학이 가늠된다.

“아직 하고자 하는 일의 1%도 보여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스트링, 브라스 중 ‘타악’이 주는 매력은 확장성과 직관성,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에 있는 것 같아요. 생각과 감정을 두드림으로 승화시키는 퍼커션이 되고자 합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남농 허건으로 본 ‘호남의 문화예술’

남농미술문화재단 학술대회...7일 목포문화도시센터

남농 허건은 의재 허백련과 함께 한국 근현대 호남화단의 양대 화맥을 조성했다. 허건은 소치 허련의 손자로 전통의 계승과 경신을 이룩하고자 했다. 허련은 조선 후기 무인이자 화가인 윤두수에 의해 견인돼 조선 후기 화풍을 주도한 남종화의 계맥을 이었다.

호남의 문화예술을 남농 허건을 중심으로 조명하는 전시가 처음으로 열려 눈길을 끈다.

(재)남농미술문화재단은 오는 7일 목포문화도시센터 대회의실에서 ‘다시 읽는 한국근현대미술, 남농 허건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김지훈 학술대회 기획운영자(전남대 강사)는 “허건은 8·15 해방 직후 ‘왜색일소’와 ‘민족미술건설’을 선구적으로 실행했고 남종화 고유의 필묵미를 주제로 자주적인 동양회화로서의 신남화풍 실경화를 창출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허건의 미술사적 업적을 기리며 그의 창작세계와 화맥을 중심으로 한 주제들을 미술 이론과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발표와 토론으로 풀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술대회는 김지훈 기획운영자의 사회로 진행되며 허건 남농미술문화재단 이사장(전남대 예



홍선표 교수 배원정 학예사

술대학장)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홍선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남농 허건 창작세계의 재해석’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배원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가 ‘한국 근현대 시화전의 전개양상-남농 허건의 작품을 중심으로’를, 이민수 홍익대 초빙교수가 ‘울림산 방화책과 전통의 변주: 허림, 허진을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이진수 2023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을 좌장으로 최성희 광주교대 교수, 조은정 국립목포대 교수, 주하영 전남대 교수가 질의자로 참여한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 여친이었던 직장 상사와 옥상에 갇힌다면?

플레이팩토리 ‘사내연애 보고서’ 내년 1월 5일까지 기본좋은극장

“살아가면서 내 편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어.” 양속인 직장 상사와 옥상에 갇힌다면 어떻게 될까? 한때 첫사랑이었으나 지금은 팀장과 대리 사이인 성아라와 김희동, 두 사람은 5일간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회사 옥상에 갇혀버렸다.

‘하리는 ‘갈뎠’는 안 하고 옥상에서 농담을 피우다니 또 너야?’ 직장인 커플들의 두근거리는 속마음이 한 편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를 통해 펼쳐진다.

㈜플레이팩토리가 로맨스 코미디 ‘사내연애 보고서’(사진)를 내년 1월 5일까지 상무지구 기본좋은극장에서 상연한다. 화·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및 오후 6시(12월 25일, 1월 1일은 각각 오후 3시, 6시).

대학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출연진이 주역을 맡는다. 관람객 중 절반가량이 직장인 커



플일 정도로 ‘오피스 로맨스’를 흥미롭게 다뤘다. 워커홀릭이자 알코올을 사랑하는 팀장 성아라 역은 이공이라, 이유리, 송은 배우 등이 열연한다. 남 일에 관심이 많은 ‘오지라파’ 김희동 대리 역에 이동구, 홍대권 등이 연기하며 이외 이진호, 허예슬, 주하영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예술과 논리, 다르거나 같거나

조선대 미대 시각문화큐레이터 전공 졸업전 ‘메타-로직’ 6일까지

예술과 논리는 전혀 다른 영역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두 영역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룬다. 중세시대 레오나르도다빈치는 예술은 물론 과학, 공학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예술과 논리 두 의미를 전시에서 투영해 동시대 이슈와 사회적 문제들을 작품으로 풀어낸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조선대 미대 시각문화큐레이터 전공자들의 졸업 전시가 ‘메타-로직’을 주제로 진행 중이다. 오는 6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김명우, 김지후, 박관우, 구민지, 이나림, 이보람, 신정균, 조혜정, 정윤호 등 모두 27명이 62점을 출품했다. 이번 전시는 조선대 문화콘텐츠학부 시각문화큐레이터 전공 졸업생 16명이 주최하고 기획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시는 모두 5개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전시 주제는 ‘제0의 원칙’. 김여진, 오예린, 이서진, 이소연 큐레이터가 인공지능의 문제와 공존에 초점을 맞췄다. 인공지능의 문제는 물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 영역을 탐험함으로써 이를 수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제2 전시는 ‘보이지 않는, 마침내 발견한’을 주제로 류시원을 비롯해 오혜성, 배근영, 최시은 큐레이터가 영적인 영역을 아우른다. 과연 영적인 영역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하는지를 질문한다.

이주를 모티브로 하는 내용도 있다. 제3 전시 ‘우리는 어떻게 피어나고 뿌리내리는가’는 나지우, 박영진 큐레이터가 이주민을 탐구한다. 이주를 매개로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고 서로 다른 문화에 익숙해지는지 들여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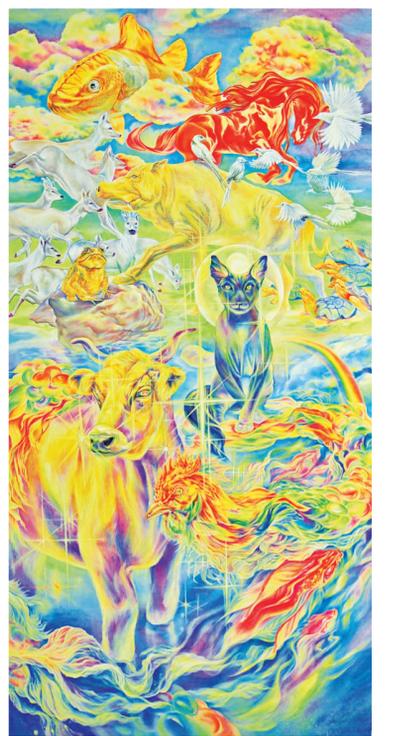
제4전시 ‘재난 알림: 지금 여기!’는 재난의 무관심을 작품으로 구현했다.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재난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무관심을 다양한 시각을 통해 풀어낸다. 최연우, 최은진 큐레이터가 기획했다.

노동의 가치를 탐구한 제5전시 ‘HOMO FABER’는 노동의 의미 등을 다채롭게 주목했다. 김도영, 임가영, 신희재, 전세진 큐레이터가 부당한 대우와 저평가되는 노동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가치를 공유한다.

참여 작가인 구민지는 이화여대 동양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의 공포를 설화 속 동물과 신성한 존재를 매개로 해결하는 내용을 표현했다. 형광 파우더를 사용해 구현한 작품은 이상세계를 보여주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참여 작가인 이매리는 고려인마을의 ‘이주의 역사’를 주목한다. 이를 통해 인류의 근원, 삶의 다양한 모습 등을 자신만의 작품으로 풀어낸다.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참여했으며 광주대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구민지 작 ‘당신은 내게 빠질 수밖에 없어’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일 5·18기념문화센터...중앙초 교사 재능기부

50여 명 청소년들이 광주 ‘5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중앙초 음악 전공 선생님과 준비해 온 연주회가 펼쳐진다.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임영희)가 ‘제4회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연다.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으로 시작하는 공연은 이바노비치 ‘다뉴브 강의 잔물결’로 이어진다. 국내에서는 ‘사의 찬미’로 알려진 곡으로 루마니아 군악대 단장이었던 이바노비치의 이름은 이 작품 하나

로 음악사에 남게 됐다.

전남대 음악학과 및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바리톤 염종호는 안 프랜켈 ‘백학’, 카푸아 곡 ‘오 나의 태양’을 부른다. 염 씨는 현재 광주시립합창단 상임단원 및 광주음악협회 합창분과 위원장으로 있다.

리베조이합창단이 들려주는 에민 곡 ‘아에이오우’, E-QLO ‘꿈을 꾸다’도 레퍼토리에 있다. 2022년 창단된 리베조이(LiebeJOY) 어린이합창단은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통해 사랑과 기쁨을 나눈다는 취지로 활동 중이다.

이외 드보르작 ‘유모레스크’와 쟂킨스 ‘팔라디오’, 히사이시 조의 영화 OST ‘기쿠지로의 여름’, ‘벼랑위의 포도’가 울려 퍼진다.

제1 바이올린은 서주희(동산초6), 윤경원(효동초6) 등, 제2바이올린은 허태민(선운초5), 유민호(학강초4) 등이 맡는다. 비올라는 박재석(운남중3) 등, 첼로는 안예현(대자초6) 등이 연주할 예정이다.

임영희 단장은 “2021년 창단한 ‘광주 5·18청소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민주화운동 기록관 및 전일빌딩, 5·18 사적지 등에서 다양한 민주인권 음악회를 펼쳐왔다”며 “음악을 전공한 교사들과 학생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